



## 가트너, 올 PC 교체수요 1억대 예상

PC 교체수요가 올해는 1억대, 내년에는 1억2,000만대에 달할 것이라고 C넷이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Y2K로 인해 교체수요가 급증했던 지난 98~99년보다 높은 수치이다. 가트너는 이 같은 교체수요 증가에 힘입어 올해 전세계 PC 출하량이 2003년보다 13.6% 증가한 1억8,64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지 쉬플러 가트너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사결과는 PC교체주기가 기업들의 예측보다 1년 이상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는 교체수요 증가의 원인으로 현재 사용되는 PC의 30% 이상이 구형 윈도우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 OS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일본의 강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신규 PC 판매가 급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트너는 올해 2분기 PC 출하량이 전년 동기대비 14.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마쓰시타 세계 최대 PDP 공장 짓기로

마쓰시타 전기산업이 900억엔(9,000억 원)을 투자해 효고현 아마가사키에 월 25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올 여름 착공할 이 공장은 2005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월 10만개 규모를 시작으로 생산을 시작한다. 이 공장의 생산라인이 풀가동되는 2007년이면 마쓰시타의

PDP 생산능력은 현재의 4배인 월 38만개로 늘어나게 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 세계 반도체경기 상승세 지속

지난 4월 세계 반도체 판매액이 2000년 7월 이후 근 4년 만에 월별 실적에서 최대치를 기록하는 호황세를 보였다.

AFP통신은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월 전세계 반도체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5% 늘어난 169억4,000만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3월의 162억8,000만달러에 비해서도 4.1% 증가한 수치다.

SIA의 조지 스칼리스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칩 판매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올해 남은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난해 가을에 예상했던 2004년도 성장치인 19%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반도체 판매 수치를 봐도 지속적인 성장을 가늠할 수 있다. SIA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매출은 15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6% 성장세를 보였으며 2월 155억 8,000만달러, 3월 162억 8,000만달러로 각각 30.8%, 32.3%씩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반도체 성장세가 지속되는 이유는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월 판매 품목을 살펴보면 PC용 D램 반도체가 10.3%로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으며 디지털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반도체가 7.6%, 그리고 휴대폰용 디지털시그널 프로세서(DSP) 판매도 6.8% 늘어난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이 고르

게 성장세를 이룬 가운데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전년 동기 대비 52%, 전월에 비해 6.6% 늘어나면서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은 전년 동기 대비 30.4%, 전월대비 3.7% 늘어났으며, 유럽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6.4%,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또 일본도 전년 동기 대비 26.9%, 전월 대비 1.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소니, 독일 발명가와 '워크맨 분쟁' 화해 합의

일본 전자업체 소니가 휴대용 녹음기 '워크맨'과 관련해 독일 발명가와 수십년간 끌어온 특허 분쟁을 거액을 주고 타결기로 합의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29일 보도했다.

슈피겔이 인터넷에 미리 띄운 31일자 기사에 따르면 소니의 '워크맨'이 자신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온 안드레아스 파벨(59)씨에게 수백만 유로를 주고 법정 밖 화해기로 합의했다고 소니 측은 설명했다.

파벨 씨는 지난 1977년 녹음된 소리를 똑같이 복제하는 휴대용 소형 부품을 개발해 '스테레오 벨트'란 이름으로 특허를 냈다. 그로부터 2년 뒤 소니가 '워크맨'이란 상품 명으로 처음 시장에 내놓은 소형 녹음기는 전세계적으로 2억개 이상 팔리는 히트상품이 됐다.

파벨 씨는 '워크맨'이 '스테레오 벨트'와 유사한 점이 많으며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으며, 지난 96년 영국 대법원은 휴대용 녹음기는 단순한 기술 개발의 결과라면서 소니 측 손을 들어줬다.

## 일 디지털 카메라업계, 수익성 악화

일본 디지털 카메라업계의 수익



성이 과당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아시아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업체간 소형화 고화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발비가 증가하는 반면 판매 경쟁으로 평균 단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디지털카메라 사진화질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화소수는 지난 99년에 121만~200만 화소가 주력이었으나 지난 해에는 300만~400만 화소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평균 판매 단가는 99년 대당 4만 2,000엔에서 지난해 2만5,000엔 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가격하락률은 지난해 평균 마이너스 14%에 달했다.

올림푸스의 지난해 생산대수는 전년 대비 1.7배 증가했으나 평균 판매가격은 15% 하락, 디지털 카메라 사업부문 영업이익이 23%나 줄어들었다. 후지사진필름도 사정은 비슷하다. 코니카미놀타의 경우 판매대수가 1백% 이상 늘어났지만 단가는 40%가량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

주요 메이커들은 올 들어서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 및 판매를 대폭 확대하고 있어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인하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논은 전년 대비 77% 증산할 계획이며 소니(50%), 올림푸스(49%) 등도 생산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 일본, 디지털 AV기기에 절전효율 표시 의무화

일본 경제산업성이 LCD TV, DVD 리코더 등 디지털 AV기기의 절전 효율 목표를 정해 빠르면 내년 7월부터 관련 제조업체들이 목표치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지아신문이 보도했다. 이 방침은 디지털 기기의 급속한

보급에 대응, 일반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현재 시판중인 제품 가운데 가장 절전 효율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디지털 AV기기의 절전 목표를 정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 관련법안에 대상 제품과 목표 연도를 포함시켜 각 제조업체들이 목표를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은 브라운관(CRT) TV와 VCR에 대해선 절전 효율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이번 방침으로 절전 효율 기준 명시 품목은 TV에는 LCD TV와 PDP TV가, 리코더에는 DVD와 하드디스크 리코더가 추가된다.

### 유럽 3G휴대폰 판매 호조로 돌아서

유럽의 3G 휴대폰 시장이 본격 성장가도에 들어섰다고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AWSJ)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시장조사기관인 독일 GfK 자료를 인용해 지난 4월 한달 동안 유럽국가에서 총 22만5,000대의 3G 휴대폰 단말기가 판매됐으며 이는 지난 3월에 비해 두배나 증가한 수치라고 전했다. 이같은 성과는 최근 LG전자와 노키아가 훨씬 가볍고 성능이 향상된 3G 단말기 여러 모델을 한꺼번에 출시하면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럽의 3G 서비스는 허치슨 왓포아 계열의 신생 이통사들이 주도하고 기존 메이저 이통사들은 시장진입에 매우 조심스런 입장이다. 하지만 더 가볍고 성능이 향상된 3G 단말기가 출시되고 소비자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다폰, 도이치텔레콤, 텔레콤이탈리아 등 메이저 이통사들도 이달부터 본격적인 3G 휴대폰 판매에 나서 급격한 시장확대가 예상된다

텔레콤 이탈리아의 드 베네디티 CEO는 "3G휴대폰시장이 더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단말기 크기가 더 줄고 판매가도 내려야 한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대당 360달러 이하의 저가형 3G단말기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말까지 이탈리아에서만 200만명 이상이 3G휴대폰을 구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fK의 한 애널리스트도 "요즘 나오는 3G휴대폰은 배터리 수명과 터치 면에서 초기 모델에 비해 진보했지만 여전히 고칠 점이 많다"며 올해 안에 3G단말기가 유럽 휴대폰 시장의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 통신시장 '빛장' 풀었다

중국정부가 통신시장의 독점을 타파하고 해외 사업자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자국 최초의 통신법 초안을 완성했다고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이 20일 보도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통신시장이지만 일부 국영업체의 시장독점 때문에 상호접속기준이나 접속비용 등이 체계화돼 있지 않아 신규 사업자들이 진입하기 매우 어려운 시장으로 악명이 높다. 중국정부는 지난 90년대부터 선진국 통신시장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인 통신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중국 통신시장의 기본틀은 지금까지도 정식 법률보다 구속력이 약한 '통신조례'에 의존하고 있어 덩치 큰 국영회사가 지방 통신기업에 대해 공공연히 통화접속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한 시장경쟁이 만연한 상황이다.

중국 신식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통신법 초안이 마무리돼 다음달 중국 국가위원회에 제출되며 늦어도 내년 중에 입법부를 통과, 시행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통신법 심의위원인 차이나 대학의 왕 웨이 구오 교수는 “새 통신법의 핵심은 독점을 타파하고 경쟁구도를 강화하는 것”이며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국 통신기업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새 통신법은 지난해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중국 통신시장을 외국자본과 기업에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는 전제로 제정된다.

따라서 경쟁사와 통화접속을 거부하는 통신회사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며 유무선 통신요금도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점차 시장원리에 맡겨질 전망이다. 또 모든 통신사업자는 저소득층에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된다. 중국정부의 통신법 제정에 대해 시스코와 모토로라 같은 외국계 기업들은 보다 예측 가능한 시장환경과 신규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모습이다. 또 거대 국영통신기업의 횡포에 시달려온 중국의 지방 통신회사들도 이제야 공정한 경쟁의 틀을 갖게 됐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베이징의 한 미국계 통신 전문가는 “비록 중국당국의 통신법제정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시장경쟁을 보장하진 않겠지만 외국 기업들에게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보”라고 평가했다

## FED, 2010년 PDP 추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되고 있는 전계발광소자(FED)의 시장 규모가 오는 2010년에는 PDP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온라인뉴스 디지털타임즈가 일본 경제산업성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의 전망 자료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한국과 일본 관련업체들의 연구개발 투자비에 근거해 나온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FED 시장은 오는 2010년 5,000억~2조4,000억엔 규모에 달해 2,000억~6,000억엔으로 예상되는 PDP시장을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시기 LCD 시장 규모는 2조8,000억~6조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시기 42인치 FED 패널 가격은 450달러로 680달러로 추정되는 PDP와 비교해 가격 면에서 적지 않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FED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업체는 일본에서는 소니, 캐논,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아사히 등이고, 한국에서는 삼성SDI와 LG전자이다. 이밖에 대만에서는 테코 나노테크와 ERSO가 개발을 추진 중이다.

한편 경제산업성의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대만 디스플레이 관련업체들은 FED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CMO의 쿠오 첸룽 부사장은 “LCD와 PDP가 이미 벽걸이TV시장을 상당 부분 차지한 상태여서 FED에 돌아갈 시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스타 디스플레이의 우 다강 사장은 “FED 개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하면서 “LCD에 사업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FID 표준 놓고 '3파전'

전자태그(RFID) 표준을 놓고 정보기술(IT)업체들간에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막대한 전·후방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는 RFID 분야는 이제 시장이 막 열리고 있는 시점이어서 표준 획득에 먼저 성공한 업체는 그 만큼 프리미엄

을 갖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 표준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C넷에 따르면 현재 RFID 표준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필립스와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연합군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에일리언테크놀로지 △매트릭스·마이크로일렉트로닉-마린 등 소기업 중심의 연합군 등 3개 진영이다.

이들 3개 진영 모두 RFID 표준을 주도하는 국제기구인 EPC글로벌에 자체안을 표준으로 제시,낙점을 기다리고 있다.브뤼셀에 위치한 EPC글로벌은 RFID태그와 리더(단말기)간 통신 규격으로 공중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인 'RFID UHF 제너레이션 2'을 선택,오는 10월4일 까지를 수용 기한으로 제시하고 있다.

필립스-TI 연합군을 비롯해 3개 진영이 제출한 표준안은 모두 국제 표준 조직의 가이드라인(지침)을 따르고 있어 비슷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3개안이 디자인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까운 시일내 RFID 시장에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전문가들은 “단지 몇달 만이라도 먼저 표준으로 채택되면 실제 시장에서는 엄청난 경쟁우위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RFID 도입에 가장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는 내년 1월까지 자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대형 기업 100곳에 RFID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표준 문제에는 직접 간여하지 않고 EPC글로벌에 맡기고 있다.월마트 이외에도 타겟, 테스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재고 관리 차원에서 RFID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